

바이러스 감염 탈 난 아이에겐 분유보다 모유가 효과

건강 바로 알기 어린이 위장관 감염병

김령 광주기독병원 소아청소년과 진료과장

위장관 감염병은 바이러스, 세균 및 기생충 등의 광범위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다.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2018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여름철 위장관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는 감염 빈도가 높은 순서대로 노로바이러스, 로타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아스트로바이러스 등이 있으며 세균으로는 감염 빈도가 높은 순서대로 캄필로박터, 살모넬라,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등이 있다. 그 외에 비브리오, 대장균, 황색포도알균, 예르시니아 등의 세균 감염은 빈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됐다.

◇노로바이러스 증상과 대처=노로바이러스는 전염력이 강해 어린이집, 학교 등에서 집단 설사를 일으킬 수 있는 주 원인이다. 직접적으로 환자와 접촉했을 때, 또는 환자의 구토나 분변으로 오염된 기저귀나 장난감, 문고리 등의 물건에 접촉했을 때 전염된다. 또한 익히지 않은 해산물, 오염된 물로 세척한 과일 및 야채, 불충분하게 조리한 고기가 함유된 인스턴트 식품 등을 통해서도 전염될 수 있다. 감염된 후 1~2일 안에 구토, 설사 등의

노로바이러스, 감염 1~2일 내 증상. 전염력 강해 격리해야
로타바이러스, 8개월 이전 백신 접종하면 예방할 수 있어

증상이 주로 나타나고 그 외 복통, 근육통, 오한, 발열, 두통, 관태감 등이 동반되기도 한다. 이러한 증상들은 2~3일간 지속된 후 저절로 호전되지만 5세 미만 어린이,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서는 4~6일간 지속될 수 있고, 충분한 수분 보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심한 탈수증이 나타날 수 있다. 신생아에게는 괴사성 장염, 영아에게는 양성 경련 등을 일으킬 수 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어린이는 증상 발생 2~5일 후에 매우 강한 전염력을 보이므로 반드시 격리해야 한다. 또한 증상이 소실된 후에도 3일 정도는 집에서 생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로타바이러스와 아데노바이러스=로타바이러스는 어린이에게 심한 탈수를 초래하는 심한 설사의 중요한 원인으로, 주요 전염 경로는 노로바이러스와 같다.

5세 미만의 어린이가 고위험군이며 감염된 후 2~3일 안에 구토, 발열, 물 설사 증상이 주로 나타나고, 4~6일 정도 지속된다. 전염력은 약 2주 정도 지속되며, 드물게 2개월 정도 지속되는 경우도 있다.

전염을 예방하는 방법 역시 노로바이러스와 같으며, 예방접종을 통해서도 예방이 가능한 것으로 밝혀져 있다. 백신 성분

심한 알러지 반응이 있거나 중증 복합면역 결핍증 또는 장중첩증의 병력이 있는 아가들을 제외하고, 8개월 이전에 표준 접종 일 정대로 접종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다.

아데노바이러스는 위장관 감염뿐 아니라 호흡기, 눈, 신장 등의 여러 부위에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다른 바이러스보다 더 오랜 기간동안 설사와 발열을 일으킬 수 있다. 전파 경로는 노로바이러스, 로타바이러스와 같다.

3세 미만의 영유아와 면역 저하자 그리고 조혈모세포 및 고형장기 이식자 등이 고위험군. 물 설사가 평균 8~12일간 지속되며, 설사 시작 1~2일 후부터 발열과 구토가 동반될 수 있다. 탈수와 호흡기 증상 또한 2~3일 동안 동반 지속될 수 있다. 예방 방법도 역시 노로바이러스, 로타바이러스와 동일하다.

◇위장관 감염병 치료의 유의점=위장관 감염병 치료에서 유산균 복용의 몇 가지 유의한 점들이 있는데, 이들은 장벽을 강화시키고 원인균이 장 점막에 부착하는 것을 억제한다. 또한 원인균을 억제하는 물질을 분비하고, 체내 면역 반응을 조절하며, 다른 유익균들이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평소 건강했던 어린이에게는 부가적



김령 광주기독병원 소아청소년과 진료과장이 발달 난 어린이를 진찰하고 있다.

(광주기독병원 제공)

인 치료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패혈증, 균혈증, 중환자실에 입원한 위독한 소아, 면역 결핍 소아에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위장관 감염병 때 주 증상인 설사로 인해 어린이에게 흔하게 영양 부족이 발생하기 때문에 적절한 영양 공급이 중요하다.

모유 수유 중인 아가에게는 전보다 소량씩 더 자주 수유를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분유 수유 중인 아가에게도 소량씩 3시간 간격으로 수유하고, 희석된 분유를 먹이는 것은 피하며, 필요에 따라 의료진과 상의해 유당 제거 분유 또는 유단백 제거 분유를 수유할 수 있다. 혼합 수유 중인 아

가에게는 분유보다 모유 수유를 늘리는 것이 좋다. 이유식을 진행하고 있는 아가에게는 쌀과 같은 탄수화물을 주성분으로 하는 죽이나 잘 익힌 채소 및 육류 등의 음식을 과하지 않게 적당량 제공하는 것이 좋다.

/정리=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전남대병원, 3D 프린터 이용 환자 맞춤형 제품 기술 심포지엄

융합의료기기산업지원센터

전남대병원(병원장 이상용)이 최근 '3D 프린터를 이용한 환자 맞춤형 제품 기술 동향 심포지엄'을 병원 5동 1층 강당에서 개최했다. <사진>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정형외과 미래 의료기기 개발 연구회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광주광역시 지원으로 설립된 융합의료기기 산업지원센터(센터장 윤택립 전남대병원 정형외과 교수)와 전남대병원 의생명연구원(연구원장 김병재 신경과 교수) 공동 주최로 열렸다. 광주·전남대병원·전남대병원 의생명연구원·조선대병원·한국화학시험연구원을 비롯해 의료산업 및 기업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등장한 3D 프린팅을 의료기술에 어떻게 적용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특히 외과(정형외과·신경외과·흉부외과



·성형외과), 안과, 치과 분야의 각 임상자들이 임상경험과 연구를 토대로 3D 프린팅 기술을 접목한 환자 맞춤형 진단과 치료법 논의도 이뤄졌다. 또 관련 기관 및 3D 프린팅 관련 산업체들과 의견도 공유함으로써 첨단 신기술 기반의 의료혁신을 위한 분야별 네트워크 활성화 및 정보교류의 기반도 다졌다. 이날 윤택립 센터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심포지엄은 총 3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5시

간 동안 진행됐다. 윤택립 센터장은 "3D프린팅 원천 기술을 보유한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선진국에서만 시도 및 사용됐던 3D프린팅과 의료기술의 융합이 앞으로 광주에서도 활발히 연구·개발될 것이다. 향후 미래의학과 의료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도해 나가며 4차 의료산업혁명을 이끌어가는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가겠다"고 밝혔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화순전남대병원 '모바일 앱' 서비스 예약·진료·결제 절차 간편해졌다

광주·전남 최초 시행

화순전남대병원(원장 정신)이 내원환자들의 접수·진료·결제 절차를 환자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광주·전남에선 최초로 '모바일 앱' 서비스를 이달부터 제공,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이 서비스로 화순전남대병원을 방문하는 이용객들은 스마트폰을 활용, 진료 예약부터 실손보험금 청구까지 모든 절차를 앱 하나로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접수창구에서 대기할 필요없이 앱에 접속해 진료예약할 수 있다. 자신의 예약일정과 진료 당일 스케줄을 확인할 수도 있다. 진료과별 의료진과 해당 의료진의 진료일정을 찾아볼 수도 있다. 병원내 환자 동선도 대폭 줄어든다. 추

가 진료나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앱을 통해 원내 진료실 또는 검사실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수납대기없이 진료비 결제도 가능하다. 실손보험 간편청구는 소멸시효(3년) 내 모든 미청구 진료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일괄청구도 가능하다. 수십개의 진료내역도 한번에 청구할 수 있다. 이 모바일앱은 구글의 플레이스토어나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검색후 다운로드받으면 된다. 내원객들은 오는 30일까지 병원내에 마련된 부스에서 모바일 앱 사용법을 체험할 수 있다. 정신 원장은 "접수·진료·결제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시간과 원내 이동문제를 환자 중심으로 개선코자 모바일 앱을 개발했다"며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화순전남대병원 '모바일 앱' 초기 화면

첨단 스마트 서비스를 더욱 늘려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부동산 투자!

(주)오천과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상담문의. 최선규 010-3605-5000

투자 하실분

- ▶ 입찰할/낙찰된 경매물건
- ▶ 엔피엘(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 ▶ 현금 3억원이상, 법적 보장

(주)오천경매.010-3605-5000